

碩士學位論文

平生教育으로서 社會音樂教育의  
技能的 價値에 對한 小考

지도교수 전 지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철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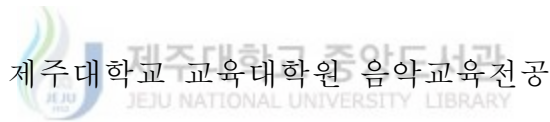
2002년 8월

# 平生教育으로서 社會音樂教育의 技能的 價値에 對한 小考

지도교수 전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7월



제출자 강 철 용

강 철 용 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8월 일

심 사 위 원 장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소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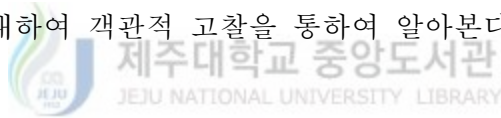
“삶은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한 존 듀이(J. Dewey)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성을 부여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그 당위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때, 교육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과정에 국한하려는 경향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듀이는 “삶은 곧 경험이고 경험은 곧 교육이다”라 하였고, 모든 인간의 삶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 속에서의 모든 삶의 경험은 교육이다”라고 교육을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平生教育)은 기존교육 체제를 보다 더 보완·성장시키는 대안으로,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사회성으로, 기성세대를 다시 교육시키는 재교육의 장으로 넓게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평생교육 가운데에서도 사회음악교육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기능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필연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그 학문적 가치로서의 체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고대 동서양의 음악관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음악교육이 인간의 인격형성 및 인성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음악교육이 인간의 인격형성 및 인성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 우리나라

라의 교육풍토나 입시논리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

하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화와 저마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심리가 평생교육을 필연적으로 태동시키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제7차교육과정'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각각에서 음악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성발달과 지적능력을 배양하는 음악 메카니즘이 사회의 전반적인 형식으로 다가왔다. 태교를 위한 음악감상, 치료를 위한 음악,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 각종 방송매체의 음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음악의 기능적인 면을 대하고 있는데, 정규학교교과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음악교육과 그 한계점을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기능적 가치들에 대하여 객관적 고찰을 통하여 알아본다.



# 目 次

## 國文抄錄

I. 序 論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	3
II. 이론적배경(理論的背景) .....	5
1. 평생교육(平生敎育)의 정의 .....	5
1) 평생교육의 발생배경 .....	5
2) 평생교육의 개념 .....	13
3) 평생교육의 필요성 .....	19
2. 음악교육의 정의 .....	23
1) 음악교육의 개념 .....	23
2) 음악교육의 목적 .....	26
3) 음악교육과 인지발달 .....	31
3.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역할 .....	35
1)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목표 .....	35
2)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필요성 .....	37
3) 기능적 역할로의 음악 .....	40
III. 結 論 .....	44
參考文獻 .....	46
ABSTRACT .....	48

# I. 序 論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은 바로 교육이다.<sup>1)</sup> 인간은 학습동물로서, 생존을 지속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단히 학습한다.<sup>2)</sup>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의 과정으로서 어린 시절은 물론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간의 태어난 이후부터의 모든 삶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듀이(J. Dewey)는 삶은 곧 경험이고 경험은 곧 교육이라고 하였고, 모든 인간의 삶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 속에서의 모든 삶의 경험은 교육이다”라고 교육에 관해 넓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sup>3)</sup>

사람들은 흔히 교육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과정에 국한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sup>4)</sup> 그러나 존 듀이가 지적한 대로 교육은 본래 인간의 생활(life)이며, 그 성장(growth)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平生教育)은 ‘기존교육체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sup>5)</sup>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출현이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 내지

---

1) J.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Publishing Co., p.383.

2) 김신일(2001),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p.1.

3) 김인희(1985), 「교육사 교육철학강의」, 문음사, p.25.

4) 황종건(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정민사, p.3.

5) 김병성(1994), 「교육과 사회」-巨視·微視 교육사회학적 관점-, 학지사, p.311.

상실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풍토는 계속되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쪽으로 편중되는, 교육의 질름밭이 형태로 성장돼 왔다. 이로 인해 각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예체능과목의 교육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 원인을 학교의 내적·외적 환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숙된 인간으로 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 중에서 음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의 주요기능은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고 왕성한 행동력을 기르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성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그들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스 초기 국가들은 수사학(修辭學, rhetoric), 체육(體育, gymnastics), 음악(音樂, music)을 그 기본 교과로 하였다. 플라톤(Platon)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음악교육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며, 적절한 음악 및 체육의 교육은 이데아(idea)를 향한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조화로운 정신과 아름답고 강건한 신체는 이데아의 복제(複製, copy)이기 때문이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악교육이 인간의 인격형성 및 인성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 우리나라의 교육풍토나 입시논리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 하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화와 저마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인간심리가 평생교육을 필연적으로 태동시키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제7차교육과정’에 입각하여 1999년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와 기능을 크게 확

---

6) 플라톤(429), 「국가론」 이병길 역(1985), 박영사.

대하였다. 또한 사회 각각에서 음악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성발달과 지적능력을 배양하는 음악 메카니즘이 사회의 전반적인 형식으로 다가왔다. 태교를 위한 음악감상, 치료를 위한 음악,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 각종 방송매체의 음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음악의 기능적인 면을 대하면서 살고있다. 정규학교교과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음악교육과 그 한계점을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기능적 가치들에 대하여 객관적 고찰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 사회교육학 영역의 연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평생교육과 음악교육의 관계,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음악교육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사회음악교육이 갖는 기능적 가치를 선 연구된 국내학위논문을 통하여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고

셋째,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의 활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앞의 절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헌 연구, 선행 연구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 연구,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고찰의 3단계를 거쳐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



부적합한 ‘치료행위로서의 음악’은 아직까지 연구되고 있는, 임상실험이 많이 필요한 학문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기에 이 논문의 자료로 인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理論的 背景)

### 1. 평생교육(平生教育)의 정의

#### 1) 평생교육의 발생배경

오늘날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파고가 힘차게 일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학교 본래의 교육적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며, 교육개혁의 한 양태이다. 교육의 총체적 원형이라 불리는 평생교육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생교육과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은 교육이라는 개념이 학교교육과 동의어인 것처럼 왜곡되어 사용되기 이전 교육 본래의 모습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의 모습은 교육의 본질로부터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다. 교육의 개념이 지나치게 편협화되고 왜곡되어 마치 학교교육과 동의어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교육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평생교육은, 교육이라는 단어의 앞에 굳이 ‘평생’이라는 접두어를 붙임으로써 이렇듯 편협되고 왜곡된 교육을 다시 원형으로, 본질로 회귀시키고자 강조한 개념이다. 평생교육의 거장인 데이브(Dave, 1976)는 이러한 의미를 일컬어 “오래된 생각의 새로운 의미발견(A New Significance of an old Idea)”이라 하였다.<sup>7)</sup> 데이브의 이러한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교육 본질로의 회귀에 대한 교육적 이상 추구가 새로이

7) 권이상·이상오(2000), 「평생교육의 실제」, 교육과학사, p.11.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된 것임을 칭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예기치 못한 정치, 경제, 사회의 극심한 변화는 학교외 청소년, 성인들의 계속교육(Further & continuing education)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성인교육(adult education), 계속교육, 평생학습 등의 개념이 되살아났다. 처음에 평생교육의 제창은 단순히 오래 전부터 기능해 오던 교육, 즉 평생을 통한 학습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다.

평생교육은 개인 및 집단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애에 걸친 개인적 및 사회적 그리고 전문적 성장을 지도 조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종합성 및 통합성을 띤 개념으로서 인간이 생애의 전단계와 전국면에 걸쳐서 최대한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공식, 비공식 및 비형식학습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sup>8)</sup>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세계교육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의 평생교육개념은 1965년경부터 그 구체적인 이론형성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개념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세계에 급격하게 보급되었으며, 1981년 우리나라 새 헌법에까지 평생교육의 조항(제31조)이 삽입되게 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교육개혁의 열풍은 험멜(C. Hummel)이 “평생교육의 개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식간이라고 할 만큼 거의 동시에 전세계를 정복하고 말았다. 어찌보면 평생교육의 제창과 발전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할만큼 교육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중의 하나이다.”<sup>9)</sup>라고 피력한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상이요, 개혁의 방향을 제

8) 김란수 외(1993), 「평생교육론」, 문은사, p.34.

9) C. Hummel(1977), 「Education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 UNESCO.

창하는 새로운 교육의 원론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이하고 다정하게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대적 도전과 위기이다.

어느 사회나 문화를 막론하고 그것이 갈등에 봉착할 때는 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위기는 한 사회나 문화가 어떠한 도전과 문제에 부딪칠 때 체험하는 균형상실 상태를 말한다. 어떠한 의미에서 위기는 쇠퇴와 멸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진보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에 처하는 교육에는 상반하는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 하나는 문제해결의 기준을 과거에 두는 전통적 보수주의요, 하나는 그 기준을 현재에 두자는 현실과 그 과정에 집착하는 진보주의요, 다른 하나는 그 기준을 미래에 두자는 혁신주의(재건주의)이다.<sup>10)</sup>

역사과정의 도가 완만한 전통사회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와 도전이 오늘에 비하면 그리 많거나 심각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거의 전통적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심각한 문제화 급격한 변화에 봉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문화의 혁신적인 개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개조의 역할을 오늘의 학교가 단독으로 담당할 수 없다는 일이 자명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체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sup>11)</sup>

랑그랑(Lengrand)은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현대의 도전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sup>12)</sup>

---

10) Theodore Brameld(1965), 「Crisis and Education」, Holt, Reinhart, and Winston.

11) 황종건(1994), 전제서, p.79.

12) Paul Lengrand(1970),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UNESCO.

그것은 현대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달,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도전,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위기이다.

최운실은 평생교육론 대두의 사회적 상황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은 국제개방화시대의 평생교육, 하이테크 시대의 평생교육, 지식정보화 시대의 평생교육, 실력주의 시대의 평생교육,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의 평생교육, 생애주기의 평생교육, 소외극복과 가치관 함양 기제로서의 평생교육이다.<sup>13)</sup>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계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모든 교육역량을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능률적인 교육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주장하는 바이다.<sup>14)</sup>

둘째, 학교교육의 기능상실을 들 수 있다.

크로플레이(Cropley)와 데이브(Dave)는 전통적 학교교육의 결함으로서 일정한 연령의 청소년에만 제한되어 있는 점, 사실에 관한 지식에 편중된 점, 학교출석(schooling)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 교육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5)</sup>

학교교육의 불만과 도전은 일리치(Illich), 프라이어(Freire), 라이머(Reimer), 질베르만(Silberman) 등의 저서에서 강력히 표현되었다.

---

13) 최운실(1997), 「신사회교육론탐구」, 대교출판.

14) 황중건(1994), 전계서, p.80.

15) A. J. Cropley and R. H. Dave(1978),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일리치(Illich)는 그의 『탈학교의 사회』에서 학교는 가르치는 것을 곧 배우는 것으로, 상급학교진학을 곧 교육으로, 졸업장을 능력으로, 언어의 유연성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능력으로 오해하거나 찬성하도록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배운 것이며,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의 대부분을 교사없이 또는 교사와 관계없이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sup>16)</sup>

프레이르(Freire)는 교육이 학교 안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학교 외의 청소년·성인들의 문화적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17)</sup>

라이머(Reimer)은 그의 『학교는 죽었다』라는 저서를 통하여 학교는 승리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곳인데 여기서 승리자란 사회적으로 거세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sup>18)</sup> 즉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규범에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을 길들이는 작용을 한다고 비난했다.

질베르만(Silberman)은 오늘날의 학교는 질서와 통제, 강제와 억압,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학생들에게 순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개념의 대두는 이와 같은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육관의 혁신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셋째, 사회교육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평생교육개념의 발달은 내적으로는 사회교육의 발달과정 속에서

---

16) I. Illich(1971), 「Deschooling Society」, harper and Raw.

17) P. Freire(1971), 「Pedagogy of the Oppressed」, Herder and Herider.

18) E. Reimer(1970), 「School is Dead」 Ancher Book.

태동하기 시작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어느 정도의 이론적 구조를 갖추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유네스코(UNESCO)에서 개최한 ‘성인교육발전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ult Education)’에서의 일이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유네스코의 성인교육전문가인 랑그랑(Lengrand)이 준비하여 제시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채택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 개념을 앞으로의 각 국 교육계획의 원리로서 권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1945년 이후에 새로 독립된 여러 신생국들에 있어서 각 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계획하는데는 국가생활의 각 영역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성인들의 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46년에 창설된 유네스코는 그 첫 모임에서 사무적인 일을 포함한 5개항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세계의 여러 신생국을 위한 성인교육 사업의 전개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교육의 도전은 서구산업선진국들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화의 갈등과 기존 사회구조의 와해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급변 등은 곧 사회교육에게 그 해결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1960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제2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주제를 “급변하는 세계와 성인교육”이라고 정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세대, 남녀 및 집단간의 조화와 협동, 학교 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회교육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몇 가지의 결론 중에 특이한 것은 성인교육의 목적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인을 교육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으로 확대된 점, 성인교육이 전국적 국가교육

계획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점차 교육을 인생전체의 과정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성인 교육이 학교교육이나 학교 전 교육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국 국가교육체제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이론과 전략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3차 세계성인교육회의’도 유네스코가 조직한 회의였고, 또한 평생교육 개념을 정식으로 논의 한 1965년의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 발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두 이 회의에 연합하고 있다는 점으로 평생교육의 구상은 이미 이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다.

그 후 평생교육개념이 세계의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68년 제 82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1970년의 “세계교육의 해”를 기념하는 12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문제를 강조하게 되었고, 1970년에 랑그랑(Lengrand)의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평생교육개론)이 유네스코를 통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0년부터 평생교육의 개념정리와 그 적용성에 관한 회의와 연구협의회 등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같은 해 유네스코의 ‘교육발전국 제위원회’의 세계교육개혁을 위한 연구보고는 그들이 제시한 21개항의 건의 중 제일 첫 번째 “모든 국가는 평생교육을 그들의 교육정책과 기본개념으로 삼아야 한다”<sup>19)</sup>고 전제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유네스코 주최의 제3차 세계성인교육회의가

---

19) “We Propose Lifelong Education as the master concept for educational policies in the years to come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Faure, Edgar., 1972)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결론에서 “성인교육은 평생교육 안에서 불가결의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하는 각국 정부의 사회교육관계법의 제정과 예산조치를 건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8월, 춘천에서 ‘평생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정립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협의한 바 있다.<sup>20)</sup>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Lifelong Education’을 ‘평생교육’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공식적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회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77년 한국사회교육협회가 주최한 ‘전국세미나’와 1978년 문교부<sup>21)</sup>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평생교육관계 보고서’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배경으로 1980년 10월 23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sup>22)</sup>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게 되었으며, 1981년에는 한국평생교육기구라는 자원단체가 창설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인 사회교육(성인교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던 유아교육진흥법과 사회교육법이 1982년에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듬해에 사회교육법시행령이, 1985년에는 사회교육법시행규칙과 사회교육법시행업무지침이 제정 공포되어 학교교육위주로 규정된 교육법과 더불어 평생교육의 법적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

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3

21)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

22) 현행 헌법 제31조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든다.”는 신교육체제의 목표를 표방한 이래 교육부의 사회교육국이 평생교육국으로 개편되고, 종래의 사회교육법을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 2) 평생교육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계속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의 동의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평생교육의 개념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평생교육의 정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랑그랑(Lengrand):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계발하고 또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생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기갱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를 이룩하려는 일종의 새로운 교육의 노력을 지칭한다.

장진호: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

김중서: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아동교육·청년교육·성인 전기교육·성인 후기교육·노인교육을 수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에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데이브(Dave, R.N., 1976)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다음의 20가지로 나누어 표현·제시하였다.<sup>23)</sup>

① 평생교육의 개념이 뜻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단어는 생(life)과 평생(lifelong)과 교육(education)이다. 평생교육의 의미와 그 범위는 위의 세 가지 단어에 부착된 뜻과 해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②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과정이다. 평생교육은 한 개인의 전체생활의 영역과 길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평생교육은 반드시 성인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령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그 밖의 모든 단계의 교육을 포괄하거나 통합하는 개념이다. 즉 평생교육은 교육을 하나의 전체로서 관찰한다.

④ 평생교육은 학교교육(formal education)과 학교 외 교육(non-formal education)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학습(planned learning)이나 비조직적 학습(informal learning)을 포함한다.

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이 제1차적이요, 가장 민감하고 결

---

23) K. N. Dave(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p.51.

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은 한 개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정 학습에 있어서 계속 되는 것이다.

⑥평생교육체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역시 한 아동이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접촉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⑦학교나 대학이나 또는 훈련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각각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중요할 따름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제 일정한 사람들의 교육을 독점하는 특혜를 누리지 못할뿐더러, 그 사회에서의 다른 교육기관들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

⑧평생교육은 계속성과 아울러 수직적, 종적 측면에서의 연결을 추구한다.

⑨평생교육은 모든 발달 단계에 있어서 수평적, 심층적 측면의 통합을 추구한다.

⑩평생교육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교육형태와는 달리 그 성격이 보편적이요, 민주적이다. 평생교육은 민주화를 대표한다.

⑪평생교육은 학습시간,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자료 등에 있어서 융통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⑫평생교육은 새로운 학습자료나 학습매체(media)가 개발되었을 때 즉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교육의 방법이다.

⑬평생교육은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허용한다.

⑭평생교육은 교양교육과 중간 직업교육이라는 두 개의 넓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구성요소는 그 성격상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⑮개인이나 사회의 적응기능이나 혁신기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충족된다.

⑯평생교육은 현존하는 교육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등의 교정적(矯正的)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⑰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⑱평생교육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회와 동기와 교육 가능성이다.

⑲평생교육은 모든 기관의 조기원리이다.

⑳실천적 단계에 있어서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의 전체적 체계(total system)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영역과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가끔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른 개념들이 혼돈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하면서 개념상 비슷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진 사회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순환교육, 생애교육 또는 진로교육, 기초교육, 비형식교육 등은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일본과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원래 서구사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생활, 여가, 오락, 교양 등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된 교육형태로 흔히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고 지칭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사회교육 역시 학교교육 이외의 의도적·조직적·계획적인 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이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교육대상을 분류 준거로 한 용어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총칭한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은 성인이며, 교육방식은 형식·비형식 교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과는 다르다. 평생교육의 개념 중에 성인기 이후의 교육활동만이 이에 해당된다. 성인교육의 개념은 미국을 위시하여 구미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6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성인교육을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조직적 교육활동, 성인들이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키워 지식을 획득하고 직업이나 직업적 자질 향상이나 직업전환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 조화롭고 영속적인 사회·경제·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주는 조직적인 교육활동, 그가 속해있는 국가나 사회가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영(英)·미(美) 사회의 사회교육 형태로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미 정규교육을 경험했던 졸업생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형태이다. 영국에서는 further education이라 불리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1944년 교육법에 의하여 제도화 된 개념으로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일제(全日制) 또는 정시제(定時制)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학생 이외의 외부인에 대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부설기관(continuing education center)이 많이 있다. 교육의 대상은 주로 성인이며 교육의 방식은 학교교육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 또는 비형식 교육과 차이가 있다.

순환교육·회귀교육(recurrent education)이란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등에 의하여 구상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번 사

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다시 정규 교육기관 즉,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입학시켜 재학습의 기회를 주어 직업적·기술적으로 자질향상을 기하게 하는 교육이다. 영국의 경우 정부 중·고위 간부들이 대학에 와서 일정기간 의탁교육을 받는 경우나 우리나라의 정부·기업체 간부들이 외국 우수 대학에서 단기간 의탁교육을 받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순환(회귀)교육은 학교교육과 직업생활을 주기적·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연계 짓는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며 그 주 대상은 직업을 가진 성인이다. 교육의 주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과 생산성 제고이며 교육의 계속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평생교육 유관개념들과 유사하다. 즉 순환(회귀)교육은 교육의 방식에 있어 학교교육이 주가 되고 학교교육과 직업이 순환적·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교육형태를 취한다는 점, 직업 진로와 관련하여 교육주기를 설계한다는 점에 있어 다른 개념들과 차이를 보인다.

생애교육(career education)은 평생교육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로나 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며, 주로 형식적 교육체제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일을 할 줄 아는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학교에서부터 전생애를 통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개념이다.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은 주로 문맹자가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보급된 개념이다. 기초교육은 학교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제도화된 교육기관에 취학하지 못한 교육대상들에게 문해교육과 생활 기능교육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보다 진

취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국가발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기본교육을 의미한다.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교육의 양태 또는 교육의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교육의 대상에 대한 규정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비형식교육은 전일제 정규학교교육으로 구분되는 형식교육과 우연적 학습 또는 부수적·부차적 학습으로 규정되는 무형식교육을 제외한 여타의 교육 양태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교육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 3) 평생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동은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이나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은 새로운 교육제도로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필요성을 랑그랑(Lengrangd)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sup>24)</sup>

- 첫째, 인간의 이상·관습·개념의 가속도적 변화,
- 둘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초래한 점,
- 셋째,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 넷째, 정치의 변동,

---

24) Lengrangd(1970), *op. cit.*



다섯째,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필요성 증대,  
여섯째, 여가의 증대와 활용,  
일곱째,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여덟째,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아홉째,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정체감(identity)의 혼란 등이다.

권이중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첫째,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사회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회구하는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

둘째, 정규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인간교육이 상실된 입시위주 교육의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인간화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셋째,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이다. 지식의 폭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즈음 계속 배우지 않으면 곧 퇴보자가 되고 만다.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에는 졸업이나 끝이 있을 수 없다.

넷째, 사회 각종 기관 및 산업체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 외 교육자원의 활용과 활성화를 통해 지나친 학교교육 의존도와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막대한 교육수혜자 부담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학생·입학시기·수학 년한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개인의 사정·형편·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수요자 중심

---

25) 권이중(1995), 「사회교육개론」, 교육과학사.

교육체제의 구축과 사회구성원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평생교육론 대두의 사회적 상황론을 근거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다음의 열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가치갈등, 인간소외, 기술의 변화와 혁신, 청소년 문제 등은 학교교육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안적 교육체제로서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산업구조가 1차에서 2차, 3차, 4차 산업으로 이행해 가면서 '지식산업'이라 불리우는 4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지식산업이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며 그런 지식을 생산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며 그런 지식의 소유자를 많이 길러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지식산업의 시대에 사회는 필연적으로 학습사회와 교육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전 사회의 교육장화(教育場化)와 거리의 교실화, 사회환경 그 자체가 교육의 장이며 동시에 교육을 위한 동기유발 요소가 되는 평생학습화를 의미한다.

셋째, 인간이 주체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성취를 위한 평생학습을 필요로 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계속교육과 평생학습을 요청하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일의 세계에 머물러 생존하기 어렵게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재교육, 계속교육, 기업내교육, 연수 등을 통한 평생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도시화와 핵가족화, 빈번한 거주지 이동, 지리적 이동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평생교육의 필요가 발로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가정교육에 대한 요구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로 연결되고 있다.

여섯째,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교육체제로서의 새로운 평생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제반 경제적 여건 및 제도적,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1차 교육기회로서의 학교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중도탈락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의 장애를 들어갈 수 있도록 2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탄력적인 열린 교육체제로서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덟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의 주기와 학습의 주기와 여가의 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순환되며 평생에 걸쳐 혼재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생애주기로 인해 이제 학습의 시기는 더 이상 일생의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홉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정년제도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새로운 사회현상이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실버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재적응교육과 노후인력 활용이라는

직업적 재사회교육의 측면에서 노령화 사회 대비 평생교육의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열째,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체제 변화 요구로서의 평생교육적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지배계급에 주어져 그들에 의해 사회가 지배되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계급이 출현하고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공업화 과정 등에서 양대 계층은 와해되고 다변화되면서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균등한 소득분배가 강조되었으며, 종래의 억압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통적인 학교 중심교육체제를 비판하는 민중교육운동과 자유학교운동 등이 등장했다. 이러한 교육운동들은 기존 사회체제의 권력구조에 대한 변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도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결국 대안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요청은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

## 2. 음악교육의 정의

### 1) 음악교육의 개념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의도적인 음악교육과 잠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음악교육을 받고 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악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학교는 왜 음악을 교과외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의문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음악교육자들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는 「논어」에서 ‘인간 교양은 시(詩)에 의해서 일어나고 예(禮)에 의해서 안정되며 음악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악은 단순한 미(美)에서 머물거나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악(樂)은 예(禮)와 예(禮)는 인(仁), 의(義), 신(信) 등의 제덕(諸德)과 결합되어서 인간의 도덕적, 전체적 행위를 규제한다고 하였다.<sup>26)</sup>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음악교육은 사회를 위한 실제적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있어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sup>27)</sup> 예를 들어 플라톤(Platon)은 음악교육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성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교육계획에 따르면, 6세부터 18세까지는 음악과 체육을, 철인(哲人)이 될 사람은 20세부터 10년간 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을 공부하도록 했다. 플라톤은 음악의 가치를 구명한 최초의 사람인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정신의 발달을 위한 원천으로서의 음악교육적 가능성보다는 일반 교양적 수단으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더 강조하였다. 중세의 음악교육은 종적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중세의 음악교육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중세의 기독교회가 종교적 교화와 예배의식의 고양을 위해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음악교육방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르네상스와 중

26) 정세문(1987), 「음악과학습지도」, 창지사, p.15.

27)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96.

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하였다. 18세기에는 음악이 민족주의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최근까지의 음악교육자들이 가져온 음악교육의 가치는 음악의 본질과 개인적 삶의 질과의 관련정보다는 음악과 삶의 사회적 요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폭 넓게 지지 받아 온 전형적인 주장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음악활동은 시민의식의 개발을 돕는다. 원만한 인격형성을 돕는다. 건전한 행동양식을 육성한다. 건강을 증진한다. 협동심을 기른다. 건전한 직업습관을 기른다. 사회성을 기른다. 애국 애족의 마음을 기른다. 여가선용을 돕는다. 가정 생활의 개선을 돕는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치와 본질을 옳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음악교육은 가치와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고<sup>29)</sup> 음악교육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성패 문제는 음악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옳은 이해에 의존하기 때문<sup>30)</sup>에 어떠한 교육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음악은 시간 속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청각현상으로써 그 청각현상에 의해 느껴진 감정과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고 음악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직화되거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소리는 음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체계화되고 조직되어진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음악교육에서 강조되고 또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음악을 주입시키거나 무조건적인 교육이 아닌, 경험

28) 이홍수(1990), 상계서, p.97.

29) Rennett Reiner(198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p.1.

30) 이강숙(1987), “외면하지 않는 음악교육”, 「음악교육」, p.45.

적이며 표현할 줄 아는 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악교육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음악교육의 목적

20세기에 이르러 진보적인 음악교육자들은 철학, 미학, 심리학, 교육학, 음악교육사 등을 연구하면서 점차 음악 교육적 안목을 넓혔으며, 더 이상 종래의 음악 외적 가치나 현실적 목적에 관련된 이론 체계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음악교육자들은 음악교육이 더욱 침체되고 그로 인한 인간의 심미적 가능성 개발을 위한 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과 개인의 성장에 관하여, 철학과 음악미학, 교육학 등에 관하여 폭 넓게 연구하였다. 인간과 인간의 삶의 본질, 음악 예술의 심미적 가치 및 그 본질에 근거하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음악교육자는 음악 지도의 근본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적 사고(思考)양식을 터득해야 한다.

대표적인 철학적 관점(觀點)들은 흔히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 실재주의(實在主義, realism), 실용주의(實用主義, Pragmatism)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철학적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편의상 일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 관점들의 범주를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철학은 어느 학파이든 ‘무엇이 진리(眞理)이며 실재(實在)인가’, ‘어떻게 그 진리와 실재를 알아내는가’, 그리고 ‘진리와 실재에 대한 가치(價値)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룬다. 이러한 의문들은 주로 형이상학(形而上學)적, 인식론(認識論)적, 가치론(價值論)적 접근에 의하여 탐색된다.

또한 음악교육자들은 음악 체험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며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음악미학(音樂美學)적 접근을 할 수 있다. 미학이란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학문이다. 음악 예술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학자들의 관점에서 몇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관련주의(關聯主義, Referentialism)이다.

관련주의는 예술작품의 가치를 작품 밖의 사물과의 관련성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음악예술의 실용적 가치는 음악 작품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관련주의자들은 음악 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 외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둘째는 형식주의(形式主義, Formalism)이다.

형식주의는 관련주의와 달리 예술 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들은 음악 작품은 그 형식(form)의 지적(知的) 관조(觀照)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음악 작품의 우수성은 형식적 구조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순수하게 정화된 음악적 형식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형식주의자들의 주장은 19세기의 엘리트주의(elitism)적 예술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은 음악체험이 순수한 지성적 작용임을 강조한다.

셋째는 표현주의(表現主義, Expressionism)이다.



표현주의는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향의 상징적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표현주의 미학자들은 비록 불완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음악이 존재와 느낌의 상태를 의미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음악이 인간의 삶과 경험들과 꼭 같거나 유사한 빠름과 느림, 셈과 여림, 긴장과 이완 등의 역동적 상태와 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나 삶의 느낌을 의미화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는 절대 표현주의(絶對表現主義, Absolute Expressionism)이다.

절대 표현주의는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작품의 형식미적 질에 있다는 형식주의의 주장을 수용하는 동시에, 예술 작품의 심미적 요소들은 모든 인간 경험에 내재하는 질적 속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표현주의적 견해도 지지한다. 이들은 예술 작품의 미적인 질은 표현 형식에 담겨진다고 생각한다. 표현 형식은 예술 상징(art symbol)으로, 관습적 상징(conventional symbol)과는 대칭되는 개념이며, 예술작품의 전체적 표현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은 음악적 행동의 성격을 음악적 속성과 인간적 현상의 융합적 체험이라고 말한다. 음악적 체험은 사고 지향적인 경우와 감성 지향적인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균형 있는 체험이야말로 바람직한 상태의 음악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사고 지향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무미건조해질 위험이 있고, 감성 지향적 체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감정적 혼돈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쪽도 하나만으로는 진정한 인간적, 음악적 가능성을 위한 값진 조건이 되지 못하며, 공유의 조건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이 부족의 전통과 미적 의미 표현의 대리물로서의 기본 기능을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원시사회에서는 정규교육이 거의 필요 없이 단순한 교습법으로 전달되었으며, 종족 환경에 필요한 음악교육을 성취하는데에 궁극적인 사회적 요청이 있었고 기회도 무한했다.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교육은 인간의 심신의 미적 조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음악은 체육과 함께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음악과 시는 하나의 예술로 간주되었으며 체육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음악은 정신을 위한 것이었다. 즉 교육의 목적은 시민의 인격, 체력, 품위 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음악교육의 목적은 정신의 조화와 절제를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도덕성은 발전시키는데 있다면서, 적절한 음악교육과 체육교육의 조화를 통해서 이상적 인간의 육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음악은 개인의 발달에 깊은 영향을 주고 음악의 종류에 따라 인간의 인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모든 문화는 기독교 사상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로써 음악과 교육도 기독교의 영향이 많았다. 음악 역시 그리스 시대처럼 인간교육을 위한 교과로써 취급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미술과 함께 종교에 봉사함으로써 신앙심을 높이고 대중에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쓰였으며 음악교육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봉건사회가 무너지게 되므로 시민계급이 새로이 대두하게 되어 인간개성과 인간중심의 문화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 때의 음악교육이 계속 연장되어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면만을 추구하게 되어 인간교

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거의 소외되어 버렸다. 즉 실제 생활에 유익한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가 무시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루소는 음악이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동시에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한 창조성을 기초로 하는 음악교육을 제창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일기 시작한 신인본주의는 그리스 문화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 인간의 정의를 존중하고 고아한 미적 정서를 육성하여 원만한 인간상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예술교육운동은 예술교육으로써 음악교육을 인식하며, 음악교육을 통하여 창조성을 개발하고 예술적으로 향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대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과학과 수학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나 교과마다 특수성을 인정하고 균형있는 교과과정을 필요로 하고 예술분야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미적교육이 처음으로 다루어져서 그 분야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시대마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적도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음악 때문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삶 때문에 음악이 있고 교육도 인간의 삶 때문에 있는 것이므로 음악교육은 음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심미안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찰스 레너드(Chales Leonard)는 “음악교육의 근본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다섯 가지의

음악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음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 기준을 세워준다.

둘째, 음악적 상상력을 길러준다.

셋째, 음악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력을 개발시킨다.

넷째, 가능한한 고도의 음악적 이해력을 갖추도록 한다.

다섯째, 일생동안 음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악적, 성악적 능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표들을 점 더 포괄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힘을 영구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3) 음악교육과 인지발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건강 생활의 유지를 위한 교육 활동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이다. 신체적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을 통해 운동 능력을 신장시키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지적 가능성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교과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수반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진리와 진리를 찾는 방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지성의 개발을 돕는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일이다.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이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성장과 학습에 관련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하기에 아직 그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주의 깊은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작용하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 증명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육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그 중에서 삐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론(認知發達論)은 교육자들에게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삐아제는 성장 과정 중에 어린이의 인지(認知, cognition)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아동 발달 이론과 교육의 실제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발달은 동화(同化, assimilation)와 조절(調節, accommodation)에 의한 도식(圖式, schemas)의 변화를 뜻한다. 그는, 인지 발달은 감각 운동기(感覺運動期, Sensorimotor Stage), 전조작기(前操作期, Preoperational Stage), 구체적 조작기(具體的操作期, Concrete Operational Stage), 형식적 조작기(形式的操作期, Formal Operational Stage)의 네 단계를 거쳐 인지 구조의 계속적인 질적 양적 변화로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삐아제 이외의 심리학자들은 인지 발달에 관하여 그와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부르너(Jerome Bruner)의 인지 발달에 대한 입장은 작동적(enactive), 영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단계로 명명되는 인지 과정의 세 가지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르너의 표현 방식은 삐아제가 제시한 일련의 인지 발달 단계와 여러 측면에서 상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ilyn Zimmerman은 어린이의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적 개념의 발달 순서를 연구하였다.

H. Hair, C. Scott 등은 음악적 경험과 이해 및 설명 능력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Stephen Schulz는 음악의 요소에 반응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음악의 요소들을 인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향상되고,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음악 요소 감지 능력이 우수하고, 악기의 음색, 빠르기, 흐름결, 조성의 변화가 방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락의 보존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어렵고, 조성 관계의 보존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Zimmerma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음악 논리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음악을 지도하면 어린이의 음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풍부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어린이의 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수행된 음악적 성장에 관한 연구와 실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빼아제와 브루너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대의 음악 교육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크 달크로즈(Jaques Dalcroze)의 접근방법, 코다이(Zoltán Kodály)의 지도방법, 오르프(Carl Orff)의 체제 등도 역시 빼아제와 브루너의 발달 단계 특성에 부합된 방법들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 표현 동작을 음악적인 개념들을 감지하고 표현하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음악 학습에서의 감각적 행동 도식과 행동적 표현에 대한 빼아제와 브루너의 입장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이, 인간이 저마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 개발함으로써 전인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심미적인 예술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진실된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의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갖

추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의 개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의 임무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신체적 발달이나 지적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심미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 그것만이 지니는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 또한 그에 못지 않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긴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나갈 때 서로가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성숙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결정되어지며 사회의 성숙도 또한 결정되어지게 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 외에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채워져야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음악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여 문화생활의 척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인격을 활성화하고 훌륭한 품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음악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이 국한된 음악교육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최대한으로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최종진은 저서 “음악과 교육론”에서 음악교육은 보통 교육의 일부로써 음악의 체계를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갖도록 하는 인간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음악교육 학자들은 음악교육은 조직화된 소리속에 내재해 있는 미적특성을 인간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음악은 예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음악교육은 미적체험의 교육인 것이다. 미적체험이란

곧 전인적 체험의 뜻을 지니는데 이러한 미적체험은 첫째, 인간성을 정당하게 해방시켜 주며, 둘째, 인간성을 풍요하게 하여 주며, 셋째, 인간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데 필연적인 체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단순한 정서적 교육만이 아니라 전인교육인 것이다.

음악은 인간에게 감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특성을 이용하여 음악교육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좀 더 선량하고 건강한 정신력 등을 길러낼 수가 있다. 또한 음악교육은 음악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또한 교사와 학생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정교류 등 이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 인격을 길러 주므로 음악교육은 인간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문명 속에서 물질만능주의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과 감정의 메마름, 인간에 대한 무관심, 또 인격이 상실되어 갈 때 이런 현상들을 내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되어진 음악교육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 3.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역할

#### 1)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목표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받는 대상에게서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 내용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멈추어 버리면 자아실현과 자아의 정립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방황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되며 인간은 사회에 그 욕구불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교육의 힘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은 대단함을 알 수 있으며 교육의 힘과 교육이 멈추었을 때의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왜 인간에게 평생교육이 필요산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히 정서적 안정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악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한다.

평생음악을 교육하는 데에도 목표가 있는데 평생교육의 기본 구상을 제시한 포레(Edgar Faure)의 6명의 보고서 형태의 'Learning to be' 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인데 여기에서 포르팀의 기본 전략에 의한 평생음악교육의 목표를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음악교육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음악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 의해 종합된 음악교육을 목표로 한다.

셋째, 평생음악교육은 지역사회를 향해 개방된 음악교육을 목표로 한다.

넷째, 평생음악교육은 배우기 위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평생음악교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신의 학습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겠고 또 다른 노력은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평생음악교육이 폭넓게 교육되어지도록 힘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의 노력이 결합할 때 평

---

31) Edgar Faure, et(1972), 「Learning to be」, Unesco.

생음악교육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교육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음악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마다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음악교육이라는 일맥 상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계성이 있는 교육이 되어질 때 꾸준히 교육받을 의지와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평생음악교육이야말로 광범위하고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교육으로서 의미만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포괄적이어야 하겠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평생음악교육의 장이 넓어질 때 진정한 평생음악교육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음악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간에게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주고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으며 평생음악교육이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겠으며 평생음악교육으로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도 절실히 필요하다.

## 2)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필요성

평생음악교육은 현대의 음악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하나의 전체적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평생음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발전이 촉진·전개되는 장소를 교육의 장 또는 교육의 마당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의 마당은 사실상 형식을 완전히 갖춘 형식교육과 형식을 불완전하게 갖춘 비형식교육으

로 나눌 수 있다. 형식교육이란 교육의 3요소(교사, 생도, 교육내용)의 조직적·의도적·계획적·계속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은 이 형식교육에 속하며,<sup>32)</sup> 비형식적 교육이란 교사나 교재를 정규적·공식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무의도적·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각종생활환경을 통해 인간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이외의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이에 평생음악교육은 교육의 세 마당, 즉, 가정·학교·사회의 장을 통하여 인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계속된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육의 세 마당 중에서 학교음악교육은 교육의 근대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가정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 오고 있으므로, 결국 평생음악교육의 중요한 조직적 교육활동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첫째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사회음악교육은 학교음악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학교음악교육은 그 제도상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음악교육은 다음 교육과정을 위한 준비로 인해 기능주입교육 내지는 교과중심교육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음악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음악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은 학교음악교육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김정환(1985), 「교육학개론」, 박영사, pp.10-11.

33) 김정환(1985), 상계서, p.136.

34) 김정환(1985), 상계서, pp.138-139.

둘째로, 학교음악교육의 확장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이 요청된다. 즉,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를 졸업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의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음악교육의 확장된 사회음악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교음악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독자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사회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음악교육은 일생동안 생활의 경험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의 학교음악교육만으로는 도저히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또한 학교음악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적·선택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더욱이 학교음악교육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학교음악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해 주는 독자적인 사회음악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음악교육에 대한 요구는 개인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로서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인의 개인적 성장을 이룩하고, 개인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아실현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 사회음악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sup>35)</sup>

이에 사회음악교육은 학교음악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의 체제에 재조직되어 인간의 생존기간이 하나의 교육기간으로서 전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은 인간의 정서적 함양을 더욱 더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

35) 차경수(1985), 「현대의 교육사회학」, 학문사, pp.347-348.

사조와 사회체계가 음악 내적 요소에 흡입되면서 음악교육은 음악 그 자체와 사회적 유용성을 가미하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성장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요소를 뒤흔들 만큼 새로운 원리와 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게 되었다. 음악교육에서도 음악의 사회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다면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성 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평생을 통하여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선적으로 학교음악교육에서이다. 물론 교육이 실용주의의 특성만을 쫓다보면 기획되었던 원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우려할 일은 학교음악문화와 학교 밖의 음악문화가 따로 공존하면서 과장의 여파는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음악문화가 우리의 사회 문화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음악교육은 올바른 음악문화 정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외에 또 하나의 필요성은 「여가의 효율성」이다. 현대와 같은 조직적 집단 단체와 기계적 노동의 연속 반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대인은 정신적 피로와 긴장, 정서적 불안과 권태, 획일적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자기 나름의 사람다운 생활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 따라서 여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음악교육이 다양한 취미의 육성과 건전한 사교적 오락수단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3) 기능적 역할로의 음악

음악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항상 존속되어 왔으며, 시대·문

화·지역에 따라 부단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음악은 인간의 가장 고조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sup>36)</sup>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호소되어 정서 및 정조에 작용하는 등 인간성 형성에 강한 추진력을 지닌 예술로써 음악은 생활의 장식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인간구성에 하나의 기초요소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승주는 음악치료라는 관점에서 음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가 가진 불안정한 상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원치 않는 것들을 안정되고 바람직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간행동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동과학, 즉 인간행동의 장애적 행동을 수정하는 행위이다.”<sup>37)</sup>

장순진은 그의 논문 「가창을 중심으로한 학습부적응아의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가창을 통한 음악치료를 가장 접근이 쉬운 음악적 체험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sup>38)</sup> 이유진은 음악활동은 정인지체 청소년의 주의 집중 행동을 향상시키며, 음악적 배경과 관계 없이 사회 생활 능력과 주의 집중 행동에 향상을 보임으로 보든 지체 청소년에게 고른 음악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9)</sup> 최방희는 그의 논문의 결론에서 “실기를 겸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포함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불안감소 및 사회성을

---

36)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서울: 창지사, 1986), p. 16.

37) 정승주(2000), “음악치료의 역할과 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38) 장순진(2000), “가창을 중심으로한 학습부적응아의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39) 이유진(2000),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고,<sup>40)</sup> 정경숙은 Activity,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리듬치기, 음악활동의 사전·사후차이와 장르별 음악치료활동에서의 변화의 차이, 그리고 장르별 기억 회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음악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재청하였다.<sup>41)</sup>

이처럼 음악은 인간의 발전과정에서 정서면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문화생활의 척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인격을 활성화하고 보다 훌륭한 품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 요소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42)</sup> 제임스 마셀(J. L. Mursell)은 “음악은 교육전체의 근본적인 사명 - 인간성의 고양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sup>43)</sup>이라 했다. 최종진은 음악의 인간적 기능적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음악은 인간성 향상을 위한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둘째, 음악은 인간 생활에 윤택함을 넣어 준다.

셋째, 음악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협조성(協助性)·우애성(友愛性)을 형성한다.

넷째, 음악은 창조적 태도를 육성한다.

다섯째, 음악은 국제 이해에 도움이 된다.<sup>44)</sup>

음악의 인간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

---

40) 최방희(2001),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의 불안감소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碩士學位論文,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41) 정경숙(2001), “치매노인의 기억회상에 관한 음악치료의 효과”, 碩士學位論文,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42) 장시형(1977), “음악교육의 성취도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교육과학 제11집」, p.159.

43) J. L. Mursell(1986) 「한국음악교재연구회역 음악교육과 인간 형성」, 세광음악출판사, p 4.

44) 최종삼(1984), 「음악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pp.42-43.

달하는 일이 곧 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성공은 음악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하여서만이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음악의 직접적인 체험, 즉 음악의 경험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갖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이라는 예술과 교육이라는 개념을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독자적인 분야이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의 교육’이 아니고 ‘음악적인 교육’을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음에 의한 교육’<sup>45)</sup>이다.



---

45) 유억희(1975), 「음악교육학개론」, 학지사, p.14.



### III. 結 論

본 논문은 먼저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를 객관적인 고찰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평생교육의 배경과 음악교육,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다양한 결과-심미적, 교육적, 치료적관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음악교육이란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활동으로 근본 이념을 전 생애에 걸친 음악의 생활화와 음악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 추구이다.

사회음악교육은 특성상 기존 교육체제와는 달리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융통성, 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 접근방식의 다양성, 대상의 평등성과 자율성, 체제의 개방성과 탈 정형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 의하면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음악교육의 기능적 가치는

첫째, 심미적 관점에서 인간 감정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Bennett Reimer가 주장한 것으로 ‘심미적 경험은 실질적, 실용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 느낌을 수반한다. 지성을 수반한다.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관심의 집중을 수반한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육적 관점에서 성장 시기에 따른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일반적 연구로 어린이의 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수행된 음악적 성장 연구와 실천 사례들은 삐아제(Piaget) 와 브루너(Bruner) 의

연구를 기초로 한 Marilyn Zimmerman, H. Hair, C. Scott, Stephen Schulz, 자크 달크로즈(Jaques Dalcroze)의 접근방법, 코다이(Zoltán Kodály)의 지도방법, 오르프(Carl Orff)의 체제 등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치료적 관점에서 최근 선행 연구된 국내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음악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각 영역별 및 대상별 연구의 많은 진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임상실험 및 학계의 반응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시점이기에 주관적 견해만을 밝힌다.

이상에서 본 연구자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인간에게 작용하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화로운 인격과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교육이 중요하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음악교육의 영역이 점차 확대될 때에 좀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삶에 활기를 주고 자아성취의 길에 부합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학위 논문

- 정승주(2000), “音樂治療의 役割과 適用에 관한 理論的 考察”,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순진(2000), “歌唱을 中心으로 한 學習不適應兒의 音樂治療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진(2000), “淫樂活動이 精神肢體 靑少年의 社會生活 能力向上에 미치는 效果”, 碩士學位論文,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 최방희(2001), “音樂治療 프로그램이 學校生活 不適應學生의 不安減少 및 社會性 發達에 미치는 效果”, 碩士學位論文, 부산대 교육대학원.
- 정경숙(2001), “癡呆老人의 기억회상에 관한 音樂治療의 效果”, 碩士學位論文,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 정 석(1993), “社會音樂教育 媒體로서의 放送音樂 研究”, 碩士學位論文, 계명대 교육대학원.
- 박혜정(1992), “非正規 教育機關의 社會音樂 教育現況”, 碩士學位論文,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 이석주(1999), “社會音樂教育을 통한 成人의 音樂的 成長에 관한 조사연구”, 碩士學位論文,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 윤경미(1993), “社會音樂教育의 振興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화연(1990), “現代醫學에서 使用되는 音樂治療에 관한 理論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어수희(1995), “音樂治療의 教育的效果”-特殊兒童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1997), “大學附設 社會教育園 音樂講座의 實態와 振興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숙(1999), “音樂治療에 대한 精神科 領域 전문인들의 인식도 調査”, 碩士學位論文,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 최현정(1997), “成人들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社會音樂教育의 증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2. 단행본

- 김신일(2001),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인희(1985), 「교육사 교육철학강의」, 문음사.
- 황종건(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정민사.
- 김병성(1994), 「교육과 사회」-거시·미시 교육사회학적 관점-, 학지사.
- 권이상·이상오(2000), 「평생교육의 실제」, 교육과학사.
- 김란수 외(1993), 「평생교육론」, 문음사.
- 최운실(1997), 「신사회교육론탐구」, 대교출판.
- 권이중(1995), 「사회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정세문(1987), 「음악과 학습지도」, 창지사.
-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이강숙(1987), 「외면하지 않는 음악교육」, 음악교육.
- 김정환(1985), 「교육학개론」, 박영사.
- 차경수(1985), 「현대의 교육사회학」, 학문사.
- 장시형(1977), 「음악교육의 성취도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교육과학 제11집」.
- 최종삼(1984), 「음악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 유억희(1975), 「음악교육학개론」, 학지사.



### 3.외국 문헌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Publishing Co.
- Hummel, C.(1977), 「Education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 UNESCO.
- Brameld, Theodore.(1965), 「Crisis and Education」, Holt, Reinhart, and Winston.
- Lengrand, Paul.(1970),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UNESCO.
- Cropley, A.J., and Dave, R.H.(1978),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 Illich, I.(1971), 「Deschooling Society」, harper and Raw.
- Freire, P.(1971), 「Pedagogy of the Oppressed」, Herder and Herider.
- Reimer, E.(1970), 「School is Dead, Garden City」, Ancher Book.
- Dave, K. N.(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 Lengrangd, P.,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UNESCO.
- Reiner, Bennett.(198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 Edgar Fáure, et. al(1972), 「Learning to be」, Unesco.

## Abstract

# Study on Functional Value of Socio-Music Education as Continuing Education

Kang, Cheol-Yong

Candidate for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Music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uts many things to consider in front of you, and I need not remind you of what John Dewey said, "Life is Education." Among modern educational issues i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continuing education. In this circumstance, it will be old-fashioned to limit education to something managed by schools only. "Living is experiencing and experiencing is education." Dewey said. It means one lives his life within the boundary of a culture and what he experiences in it is education itself.

The continuing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way to make today's education system better. It can provide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for more people and the place to train those who graduated from formal schools. It also performs this function now.

Socio-Music education has drawn people's attention. It is said to be essential these days on account of its various functional values. But I'm afraid that it has no firm ground to stand on. From the ancient times, music has been acknowledged to have strong influence upon human nature and development. But we have denied to approve the fact. We have put music education further behind other subjects directly related to the entrance exam.

However, the rapidly changing societies and the ne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has brought the continuing education into our concerns. And more, the 7th Curriculum broaden that kind of education. People also open their eyes and ears widely to the values the music education has. They think it will help improve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of human beings. You can apply the function of music to almost everywhere: prenatal care, therapy, cultivation of emotions, entertainment....

I presents the functional values of socio-music education and how to make up for the neglect of music education in formal school systems through socio-music education as a branch of the continuing education.